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

林 元 澤*

<目 次>

- I. 階級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 II. 國民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 III. 社會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 IV. 韓國政治經濟學 確立의 緊要性
- V. 韓國政治經濟學의 輪廓

I. 階級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筆者에게 주어진 課題는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라고 되어 있다. 筆者에게 주어진 이 課題는 두가지 部分에 軸心이 있는 것으로 筆者에게는 느껴진다. 첫째는 그냥 經濟學이 아니라 「政治經濟學」이라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哲學的인 基礎」라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의 軸心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結局 「政治經濟學」을 어떻게 規定하느냐 하는 問題가 될 줄로 안다. 그러면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은 어떠한 經濟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論議의 進行上 다음과 같이 해서 「政治經濟學」과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을 區分하기로 하자.

Sweezy는, 그의 『資本主義 發展의 理論』 가운데에서, 「人間 對 財貨의 關係」(relations between men and things)라는 말과 「人間 對 人間の 關係」(relations between men and men)라는 두개의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 우리는 Sweezy의 이 두개의 用語를 「政治經濟學」과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을 區分하는 方便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生産은 生産手段과 勞動이라는 두개의 生産要素의 結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개의 生産要素의 結合에는 「人間 對 財貨의 關係」의 側面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5.

또 하나 「人間對 人間の 關係」의 側面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前者로부터 生産力 概念이 成立되고 後者로부터 生産關係라는 概念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知悉하고 있는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論議의 進行上 여기서 다음과 같이 「政治經濟學」과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을 區分해 보기로 하자. 즉, 「人間對 財貨의 關係」의 側面의 解明에 보다 力點을 두고 있는 經濟學은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이고, 이에 대해서 「人間對 人間の 關係」, 즉 社會關係의 側面의 解明에 보다 力點을 두고 있는 經濟學이 다른아닌 바로 「政治經濟學」이라는 것이다.

政治經濟學의 古典的 代表로서 Ricardo의 經濟學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icardo가 그의 著書에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이라는 書名을 附與함으로써 「政治經濟學」이 誕生되었다고 보면 잘못일까? 그러면 Ricardo는 그의 「政治經濟學」의 課題로서 어떠한 것을 問題삼았을까? 그는 『政治經濟學과 課稅의 原理』 第一版 序文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地上의 모든 生産物, 즉 地表에서 勞動, 機械, 資本의 結合에 의해서 緣由되는 모든 것은 三大階級, 즉 土地所有者, 資本所有者 그리고 勞動者에게로 分配된다.……이 分配를 規制하는 法則을 解明하는 것이 政治經濟學의 主要 課題이다」.⁽²⁾ 여기서 Ricardo는 確實히 「人間對 人間の 關係」의 側面에 그의 經濟學의 力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 確實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 Adam Smith에서부터 發生되어서 Ricardo, Malthus를 거쳐 J.S. Mill에 이르는 古典經濟學은 若干의 杼軸의 差異는 있기는 하지만, 「人間對 人間の 關係」의 側面의 解明에 重點을 두었다는 點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共通點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古典經濟學은 바로 政治經濟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對 人間の 關係」의 側面의 考察에 重點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 政治經濟學으로서의 古典經濟學은 勞動價值論을 그 理論的 出發點으로서 採擇하게 되었다.

그런데 獨逸인이면서도 英國에 와서 살면서 實質적으로 英國의 古典經濟學을 集大成했다고 볼 수 있는 Marx의 經濟學도 政治經濟學이었다고 할 수 있다. Marx에 이르러 「政治經濟學」은 完全無缺하게 「階級經濟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arx와 그에 先行하는 英國의 古典經濟學者들과의 差異는 英國의 古典經濟學者들이 階級을 取扱하면서도 그렇게 強烈하게 階級鬭爭을 強調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Marx는 階級鬭爭理論과 「搾取」의 理論을 前面에 내세우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階級革命에 의한 社會主義 實現이 그의 政治經濟學의 遠大한 實踐的 目標가 되고 있었다는 點이다.

(2)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veryman's Library, p. 1.

1871년에 發生한 「限界革命」은 「人間 對 人間의 關係」의 側面도 取扱하고 있지만, 보다 「人間 對 財貨의 關係」의 側面에 置重해서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價値論도 勞動價値論에서 限界効用價値論으로 바뀌지게 되었다. 限界効用學派가 取扱하는 主題는, 大膽한 簡略化에 의해서 特色지우면, 結局 價格決定理論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分配論도 結局 價格決定理論이 되고 말며(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 따라서 古典經濟學者, 特히 Marx 에 있어 볼 수 있는 「人間 對 人間의 矛盾 關係」에 관한 描寫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學, 즉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을 確立한 代表的인 學者로서 우리는 Marshall 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며, 따라서 이러한 經濟學을 新古典派理論이라고 해 두기로 한다.⁽³⁾ 그리고 이 新古典派 理論을 價格理論, 즉 微視經濟學이라고 便宜上 輪廓지어 놓기로 하자.

그런데 이 新古典派理論 뒤에 Keynes가 나와서 所得理論, 즉 巨視經濟學을 確立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Keynes의 經濟學은 어떠한 經濟學이라고 할 수 있는가? 「政治經濟學」인가 「政治經濟學 아닌 經濟學」인가? 大端히 興味있는 論點이 될 수 있는 問題이지만 論議의 進行上 Keynes의 經濟學도 「人間 對 人間의 矛盾關係」를 前面에 내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暫定的으로 「政治經濟學이 아닌 經濟學」이라고 해 두기로 하자.

世界 第二次大戰 以後 美國에서 新古典派의 價格理論, 즉 微視經濟學에다가 Keynes의 所得理論, 즉 巨視經濟學을 統合했다고 하는 「新古典派 總合」(neo-classical synthesis)을 基本 패러다임으로 하는 Samuelson을 先頭로 하는 「新新古典派」(라고 불러 두기로 하자)가 擡頭되어 그것이 오늘날 主流經濟學을 形成하고 있다고 해 두기로 한다. 그런데 이 新新古典派도 역시 政治經濟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政治經濟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역시 階級經濟學으로서의 Marx經濟學 뿐이며, 그 밖의 經濟學, 이를테면 오늘날의 主流經濟學이라고 할 수 있는 新新古典派理論은 政治經濟學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런데 Samuelson은 그의 著書 『經濟學』 11版에서 곧잘 「政治經濟學」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世界에 또 하나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經濟學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英國의 「新케인지안」(neo-Keynesian) 또는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이라고 불리우는 經濟學이다. 거기에는 J. Robinson, P. Sraffa, Kaldor, Pasinetti 등이 包含되고 있다. 이 post-

(3) Marshall은 勞動價値論과 限界効用價値論을 統合함으로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 버린」(cuts the Gordian knot) 巨人이지만 여기서는 論議의 進行上 이렇게 해두기로 한다(cf. H.L., Mc-Cracken, *Value Theory and Business Cycles*, 2nd ed, 1936, p. 13).

Keynsian은 美國의 新新古典派와 對立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는 點에 特色이 있다고 할 수 있다. neo-Keynesian 또는 post-Keynesian이 「政治經濟學」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여기서 即刻的으로 그 確答을 提示하는 것은 困難한 일이지는 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新新古典派보다 政治經濟學的인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完全한 意味에 있어서의 政治經濟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두기로 하자. 왜 그것이 新新古典派보다 政治經濟學的인가 하면 偉大한 Marshall이 統合해 놓은 勞動價值論과 限界効用價值論을 다시금 分解시키고, 限界効用理論을 拋棄하고 勞動價值論으로 復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價格設定에 대한 이러한 思考方式은 價格이 需要에 의해서 決定되기 보다는 基本的으로 生産에 의해서 決定된다(prices are basically production-determined rather than demand-determined)는 古典經濟學의 傳統에 완전히 追從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古典派의 分析에 있어서는 需要의 變動은 價格決定에 아무런 直接的 役割도 하지 않고 自然價格이 生産費를 反映하고 있을 뿐이다(natural prices reflect production costs).」⁽⁴⁾ 그리고 完전한 政治經濟學도 되지 못하는 것은 「post-Keynesian은, 다른 俗流經濟學者와 마찬가지로, 階級鬭爭, 疎外, 搾取 등의 概念을 거의 使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⁵⁾

以上 우리는 經濟學의 흐름 가운데에서 政治經濟學의 潮流를 踏査한 結果, 오늘날 眞正한 意味에 階級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은 Marx經濟學이라는 結論에 到達했다고 할 수 있다. 勿論 이에 대해서는 反論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 以上の 論議는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 가기로 하자. 요즈음 美國 經濟學界는 Samuelson에 의해서 代表되는 Liberal 즉 新新古典派와 Sweezy에 의해서 代表되는 Radical, 그리고 Friedmann에 의해서 代表되는 保守派 등 크게 세 潮流로 分類될 수 있고, 그 밖에 또 Samuelson에 의해서 the American Marx라는 稱呼를 받은 Veblen, 그리고 그 系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Galbraith, 그리고 Myrdal 등도 考慮의 對象에서 除外해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Myrdal의 經濟學觀에 관해서 若干 言及해 두기로 하자.

Myrdal은 Samuelson 등의 主流經濟學에 대해서 露骨의인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그는 모든 科學에는 理論構成 以前에 하나의 「價值」가 介入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科學의인 일에는 不可避的으로 a priori的인 要素가 介入된다. 즉, 그 基底에는 價值評價(valuation)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價值評價는 우리가 事實을 觀察하고 理論의 分析을 行하는 段階에 이미 必然的으로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⁶⁾ 「어떠한 社會科學도 한번도 中立的(neutral)

(4) A.S. Eichner, *A Guide to Post-Keynesian Economics*, 1979, p. 40.

(5) *Ibid.*, p. 130.

(6) G. Myrdal, *Objectivity in Social Research*, 1969, p. 9.

이었던 적이 없으며, 또 단순히 事實的(factual)이었던 때도 없었다. 이들 用語의 傳統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客觀的(objective)이었던 때도 없었다. 研究는 항상 論理的 必然性에 의해 道德的, 政治的 價値評價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며, 研究者는 그것을 明示的으로 提示할 必要가 있다.⁽⁷⁾ 「나는 研究가 客觀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價値前提(value premises)가 明示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것이 社會科學에 있어 客觀的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意味이다.»⁽⁸⁾ 以上에 引用한 긴 Myrdal의 文章은 經濟學, 아니 社會科學 一般이 結局 「人間 對 人間의 關係」의 側面을 갖고 있으며, 그 側面의 解明이 主要課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人間 對 人間의 關係」의 側面-그것은 結局 무엇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는가? 結局 「人間 對 人間의 關係」에서 發生되는 「利得損失」에 관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人間 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은 어떻게 해서 測定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問題는 結局 人間과 人間 사이에서 等價 交換이 行해지느냐 또는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느냐 하는 問題로 歸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政治經濟學은 그 基礎理論으로서, 古典經濟學과 Marx 經濟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勞動價値論을 取하는 것이 하나의 常例로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反對로 말하면, 勞動價値論을 取하지 않는 經濟學은 政治經濟學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 「價値論 없는 經濟學」은 政治經濟學이 될 資格이 없다는 極端的인 立言도 成立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⁹⁾

그런데 Myrdal은 根源的으로 오스트리아學派의 限界效用價値論에서의 霧圍氣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러한 Myrdal이 「價値前提」의, 즉 「너의 學問은 누구를 위한 學問이냐하는 것을 明白히 밝혀라」고 하는 立場을 取했다는 것은 確實히 하나의 異變이라고 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는 「價値評價」를 「高次元의 價値評價」(higher valuations)와 「低次元의 價値評價」(lower valuations)의 둘로 나누고 있다. 「高次元의 價値評價」는 「人間의 尊重」(respect for life)과 「平等主義」(egalitarian principle)를 내세우는 自身の 經濟學이 取하고 있는 것 같은 立場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 한편 「低次元의 價値評價」는 主流經濟學(新新古典派)이 取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術語上的 發明」(terminological innovation), 「術

(7) *Ibid.*, p. 74.

(8) *Ibid.*, p. 56.

(9) 나는 「人間 對 財貨의 關係」로부터 誘導되고 있는 限界效用價値論이 「人間 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 支配勞動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이 된다는 理論을 展開함으로써 Jevons, Walras, Wicksell의 理論이 Malthus, Marx의 政治經濟學으로 轉換될 수 있다는 것을 論證한 바 있다(『第二資本論』第一篇 第二章 參照)

(10) G. Myrdal, *op.cit.*, p. 105.

語的 現實逃避(terminological escapism), 「理論的 現實逃避」(theoretical escapism) 등에 의해서 「自國에 多數의 巨大한 貧困의 溪谷이 있는 것에 無關心을 表明하는 經濟學」이라는 것이다.⁽¹¹⁾ 以上の 說明에 의해서 判斷하면 Myrdal의 經濟學도 「政治經濟學」이라고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政治經濟學이 갖고 있는 勞動價值論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II. 國民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그런데 우리는 第二의 種類의 政治經濟學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國民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이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階級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이 주로 當時의 「先進」英國에서 發展되었다고 한다면, 「國民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은 주로 當時의 「後進」인 獨逸에서 發展되었다는 것이다. 獨逸經濟學의 主流는 歷史學派라고 할 수 있는데, 그 歷史學派는 또 經濟學을 國民經濟學으로서 取扱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便宜上 歷史學派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F. List의 經濟學을 取扱해 보기로 하자. 그의 著書는 『政治經濟學의 國民的 體系』라고 되고 있다. 그는 同書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Adam Smith의 理論은 단순한 人類(Menschheit)와 단순한 個人(Individuum)만을 보고 國民(Nationen)을 보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¹²⁾ 그리하여 List는 英國의 Adam Smith의 經濟學을 「萬民經濟學」(die kosmopolitische Ökonomie)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獨逸은 政治經濟學(die politische Ökonomie)을 確立해야 된다고 主張했다.⁽¹³⁾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政治經濟學」이 「階級經濟學」이 아니라 분명히 「國民經濟學」을 指稱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줄 생각한다. 그것은 그 當時 獨逸의 國內市場이 英國 工業商品의 市場化되고 있는 事態를 解決하는 데 있어서 Adam Smith의 經濟學, 즉 自由貿易을 主張하는 理論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獨逸에 害毒을 끼친다고 List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當時 「後進」이었던 獨逸은 「先進」英國에 의해서 항상 「損失」을 보는 立場에 있었다. 그것을 敏感하게 把握한 List의 苦悶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心情을 그는 그의 책 序文에 綿綿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 序文에서 나의 半生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내가 政治經濟學의 支配的인 理論의 眞

(11) *Ibid.*, p. 23.

(12)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1959, S. 2.

(13) *Ibid.*, S. 13.

理性에 대하여 처음으로 疑問을 느꼈고, 그 理論의 誤謬와 그 誤謬의 根本原因의 探究에 全力을 다한 以來 23年이 되었다. 내가 이 긴 歲月 단순한 幻想을 追究해 왔다면 너무도 悲慘하지 않은가.」⁽¹⁴⁾ 정말 이러한 懷絶하기 짝이 없는 序文으로 된 책은 歷史를 통해서 처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獨逸은 英國의 利益을 中心으로 해서 形成된 Adam Smith의 經濟學, 즉 「萬民經濟學」의 支配下에 있었으며, 「學問의 教養이 있는 모든 國家官吏, 그리고 新聞, 雜誌의 編輯者 그리고 經濟學教授들은 萬民主義的 學說(Adam Smith의 經濟學)에 教育되어서, (獨逸의 利益이 되는) 모든 保護貿易에 관한 學說은 하나의 理論的 恐怖로 여겨지고 있었으며,」⁽¹⁵⁾ 그리고 獨逸의 利益이 되는 保護貿易을 主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激越嘲笑의인 言辭를 弄하면서, 그는 모든 學者들에 의해서 認定되는 政治經濟學의 가장 初步的인 原理도 모르는 사람, 아니 그것을 理解할만큼의 머리를 갖지 않았다(habe doch nicht Kopf genug sie zu fassen)고 非難했다. 이들 英國 利益의 代辯者들에게는 支配的인 理論도 獨逸學者들의 論證도 그들의 便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기가 무척 쉬웠다.」⁽¹⁶⁾

즉, List의 政治經濟學은 「人間 對 人間의 關係」의 側面에 關心을 두는 經濟學이었으나, 但 그 「人間 對 人間의 關係」는 國內에 있어서의 「階級 對 階級の 關係」에서 벌어지는 「利得損失」이 아니고, 對外的으로 「國家 對 國家의 關係」에서 벌어지는 「利得損失」에 대한 關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中 그는 北美合衆國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北美에 갈 때 「過去에 自己를 誤導해 왔던」 책을 가져 가지 않고 直接 體驗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努力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過去 몇 世紀에 걸쳐서 發展해 왔던 그 縮約圖를 美國에서 觀察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經濟의 段階的 發展」(die stufenweise Entwicklung der Volksökonomie)이라는 想念에 到達하게 된다. 이리하여 List는 「歷史的 觀點」을 取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國民經濟는 「未開狀態」·「牧畜狀態」·「農業狀態」·「農工業狀態」·「農工商狀態」라는 發展段階를 거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國民의 獨立과 存續을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低位의 文化狀態로부터 高位의 文化狀態로 移行함으로써 農業, 工業, 航海業, 貿易을 自國의 領域內에 統一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⁷⁾고 말하고 있다.

(14) *Ibid.*, S. 1.

(15) *Ibid.*, S. 5.

(16) *Ibid.*, S. 5.

(17) *Ibid.*, S. 7.

그리하여 List는 다음과 같은 二分法을 取하고 있다. 「人間社會는 二重의 見地(unter einem gedoppelten Gesichtspunkt), 즉 全人類를 眼中에 두는 萬民主義의 見地와 特殊한 國民의 利害(die besonderen Nationalinteressen) 및 國民의 狀態를 考慮하는 政治的 見地로부터 觀察해야 되는 것 같이, 모든 經濟는 私經濟이든 社會經濟이든 두가지 主要見地로부터 觀察된다.」⁽¹⁸⁾ 「이리하여 萬民經濟學과 政治經濟學, 交換價値의 理論(Theorie der Tauschwerte)과 生産力의 理論(Theorie der produktiven Kräfte)이 있게 되며, 兩者는 本質的으로 다르며(wesentlich verschieden), 獨立的으로 發展되어야 할 學問이다.」⁽¹⁹⁾

위의 이 말은 또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經濟學 一般」은 「交換價値의 理論」이 되지만, 後進國의 「國民經濟學」은 「生産力의 經濟學」이 되어야 한다고.

III. 社會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우리는 위에서 List가 「歷史的 觀點」에 立脚해서 獨逸經濟學은 「生産力의 理論으로서의 國民經濟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List의 「生産力의 理論」이라는 것이 하나의 「社會經濟學」의 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點에 우리는 모름지기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社會經濟學」(Theory of Social Economy)이라는 말을 書名에까지 붙인 사람으로 Cassel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한 經濟는 程度의 差異는 있기는 하지만, 擴張된 社會有機體(more or less extended social organization)이며, 따라서 經濟學의 對象도 本質的으로 社會現象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點을 強調하기 위해서 經濟學의 對象은 社會經濟(social economy)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正當한 일이다.」⁽²⁰⁾

뿐만 아니라 그는 또 「社會經濟的 方法」(social-economic ways)과 「私經濟的 方法」(private-economic ways)이라는 用語까지 使用하고 있다. 이를테면 많은 貨幣를 갖는다는 것은 「私經濟的인 立場」에서 볼 때에는 좋은 일이지만, 「社會經濟的 立場」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式으로 兩者를 區分하고 있다.⁽²¹⁾

그런데 우리가 List의 「生産力의 理論으로서의 國民經濟學」이 또한 「社會經濟學」도 된다

(18) *Ibid.*, S. 40.

(19) *Ibid.*, S. 41.

(20) G. Cassel, *Fundamental Thoughts in Economics*, 1925, p. 15.

(21) *Ibid.*, p. 16.

고 할 때의 「社會經濟學」은 어떠한 意味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經濟現象을 단순한 經濟現象의 데 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其他 文化現象・政治現象과의 相互關聯下에서 取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經濟現象을 社會全體의 現象과의 相互關聯下에서 取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은 經濟學이면서도 經濟學아닌 要素를 包含하고 있는 經濟學以上 이라는 特色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社會經濟學으로서의 政治經濟學」 또는 「社會經濟學으로서의 國民經濟學」의 特色을 List는 어떻게 浮刻시키고 있는가 하는 點을 다음에 보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國民의 文明, 政治의 發展 및 勢力(die Macht)은 주로 그 經濟의 狀態에 의해 條件지어지고 있다(durch ihre ökonomischen Zustände bedingt), 그 逆도 成立한다. 그들의 經濟가 發展하고 完成되면 될수록 그만큼 國民의 文明과 勢力은 增大된다. 그 文明과 勢力이 增大되면 될수록 그만큼 그 經濟的 發展도 進展된다.」⁽²²⁾ 여기서 List는 經濟와 政治, 文化의 相互關聯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List의 立言을 極히 높이 評價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841年의 그의 主著에 나타난 이 理論은 1859年에 나타난 Marx의 『經濟學批判』序文에 掲載되고 있는 所謂 唯物史觀命題의 先驅的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arx가 그의 唯物史觀을 確立하기 前에 List의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는 問題는 極히 興味있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Marx가 唯物史觀을 確立하기 以前에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은 經濟와 政治, 文化의 相互作用에 관한 理論을 提示하고 있는 것은 歷史적으로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國民의 生産力은 非但 個人의 勤勉, 節約, 道德, 知識 또는 天然資源 또는 物質的 資本에 의해서 決定될 뿐만 아니라, 國家의 社會的, 政治的, 市民的 制度 그리고 法律, 特히 國家의 存續, 獨立의 確保에 의해서 決定된다. 個人이 아무리 勤勉하고 節約하며 發明的, 企業的, 道德的, 知的이라고 하더라도 國民의 統一(nationale Einheit)이 없고 또 國民의 分業(nationale Teilung des Arbeit)과 生産力의 國民的 結合(nationale Konföderation der produktiven Kräfte)이 없으면 그 國民은 결코 高度의 幸福과 勢力을 確保할 수 없다」.⁽²³⁾

이렇게 List는 社會的 要素를 生産力의 觀點에서 보고 있다는 點에 우리는 커다란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Marx도 社會現象을 歷史的 觀點에 立脚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것을 生産關係의 側面에 立脚해서만 보고 있는 데 대해서, List는 그것을 生産

(22) F. List, a. a. O., S. 39.

(23) Ibid., S. 41.

力의 觀點에 立脚해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Marx는 社會現象을 生産力의 觀點에 立脚해서 보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List는 社會現象을 生産力의 觀點에 立脚해서 보고 있다는 것도 注目해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한다. 「國民的 規模에 있어서의 分業 및 生産力의 結合(Teilung des Arbeit und Konföderation des produktive Kräfte im nationalen Maßstab)이 行해지는 것은 그 國民에 있어서의 精神的 生産(geistige Produktion)과 物質的 生産(materielle Produktion)이 均衡을 取하고, 그 國民의 農業, 工業, 商業이 均衡을 取하고 있을 경우이다.」⁽²⁴⁾

그런데, 生産力의 觀點에 立脚해서 社會現象을 取扱한 社會經濟學者가 List 以外에 Marshall 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沒覺해서 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Marshall은 케임브리지大學 數學科를 2등으로 卒業해서 迂餘曲折을 겪은 뒤 經濟學을 하게 되었다는 事緣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經濟學은 驚愕할만큼 많은 社會經濟學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는 生産要素로서 土地, 勞動, 資本의 3要素 以外에 또 하나 「組織」(organization)을 包含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注意하고 또 注意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Marshall에 의하면, 「組織」은 「分化」(differentiation), 즉 「機能의 高度의 細分化」(increased subdivision of function), 즉 「技術, 學問, 機械의 高度의 專門化」(development of specialized skills, knowledge and machinery)와 이 分化의 「總合」(integration)이 잘 된 가장 高度로 發達한 有機體야말로 生存競爭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most likely to survive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²⁵⁾

IV. 韓國 政治經濟學 確立의 緊要性

우리는 以上에서 過去 歷史에 나타난 政治經濟學의 樣態와 特色을 보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政治經濟學의 樣態를 決定한 歷史的 條件을 한번 考察해 보기로 하자.

極히 概括的으로 말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줄 안다. 「先進」인 英國에 發生된 政治經濟學은 「國民經濟學」이 될 必要가 없었고 List가 말한 「萬民主義 經濟學」이 되는 대신(對外的 緊迫感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內部矛盾만이 浮刻된 「階級經濟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當時의 「後進」인 獨逸에서 發生된 「政治經濟學」은 外部로부터의 壓迫 때문에 「國民經濟學」이 되었으며 內部矛盾인 階級問題는 二次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24) *Ibid.*, S. 41.

(25)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927, p. 241.

그리고 當時의 「後進」인 獨逸의 「國民經濟學」이 「生産力の 理論」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生産力發展의 原理를 社會學的으로 研究해서 「分化」와 「總合」에서 찾음으로써 「國民生産力の 理論」으로서의 「國民經濟學」을 「社會經濟學」으로 轉換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當時 世界 第1의 生産力を 維持하고 있었던 英國이 다름아닌 바로 「分化」와 「總合」이라는 「組織」의 原理를 生産力發展에 適用시킴으로써 生存競爭에서 항상 勝利를 거두고 있었다는 것을 Marshall의 「組織의 理論」으로서의 「社會經濟學」에서 우리는 충분히 確認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Marx의 階級經濟學은 階級鬭爭에 의해서 國家를 破壞해 버리는 것을 窮極의 目標로 삼고 있었으며 (Engels는 『家族, 私有財産, 國家의 起源』에서 國家死滅論을 主張하고 있다.), 萬國의 勞動者가 團結하는 國際主義를 標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Marx의 階級經濟學이 國民經濟學을 嫌惡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Marx의 階級經濟學으로부터 生産力發展의 社會的 原理가 되는 「分化」와 「總合」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政治經濟學은 어떠한가 하는 最後의 問題를 論해 보기로 하자. 韓國 政治經濟學은 어떠한 樣態를 가져야 하는가. 이 問題의 解決에 우리는 「哲學的 基礎」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過去 經濟學 또는 社會科學을 支配해 온 方法論에 세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① 社會現象에도 物理法則이 支配한다고 하는 Marx主義의 唯物論과, ② 社會現象에는 心理法則이 支配한다고 하는 方法論의 一元論 (methodological monism) 또는 「心理主義」와 ③ 「方法論的 二元論 (methodological dualism) 또는 프라그마티즘 등 세가지이다. ①은 Marx主義 社會科學의 方法論이며 蘇聯을 위시한 共產主義 國家에서 適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②는 「利己心」을 主張하는 Adam Smith를 비롯한 古典經濟學者 全部와 그리고 限界效用學派 全部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은 理論이 「眞理냐 非眞理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理論이 「有用하느냐 有用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따지자는 Richert, Max Weber, Schumpeter 등 그리고 最近의 Popper도 이에 包含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가지 方法論가운데에서 ① 플러스 ② 즉 社會現象에는 物理法則(使用價値의 法則)과 心理法則이 支配한다는 立場을 取하기로 한다. 우리가 이러한 方法論을 取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蘇聯이 失敗한 것은 唯物論을 取하면서도 人間은 누구나 自己自身の 利己心에 따라서 支配된다는 心理法則을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反面에 美國이 失敗한

은 理論의 有用性만 따지고 그 一般的 眞理 與否는 따지지 않음으로써 適應에 失敗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즉 法則을 無視한 罪過로서 法則에 의해서 處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這間의 事情을 簡單하게 紹介해 보기로 한다. 1981년에 出版된 美國의 巨物級 經濟學者들이 共同 執筆한 『經濟學的 危機』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文章이 掲載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現在 危機의 根源(the origin of the present crisis)은 이 理論 者 理論이 아니라 體系(system)의 또는 파라다임의 根本的 假定的 失敗(failure of the basic assumption) 때문이다. Keynes經濟學은 18世紀 佛蘭西가 重商主義를 清算한 以來 가장 深刻한 生産性的 危機(the most severe productivity crisis)를 가져오게 했다. 全先進國에 있어서의 生産性的 危機 特히 가장 Keynes에게 充實했던 두나라에 있어서의 最惡의 生産性危機(worst in two most faithfully Keynesian countries)는 需要가 供給에 先行되는 內容의 Keynes 理論(Keynesian theorem of the demand-control of supply)를 破産시켜 놓고 말았다. 그리고 資本形成의 危機(이것도 英國과 美國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도 Keynes의 파라다임(Keynesian paradigm)에 의해서는 說明不可能하다. Keynes는 生産性的 重要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生産성은 需要의 函數이며 需要에 의해서 決定된다(function of demand and determined by it)고 생각했다. 1930年代 大不況時 케임브릿지에 있어서의 Keynes의 세미나에서 J. Robinson, R. Harrod, A. Lerner 等に 의해 Keynes는 몇 번이고 <生産성이란 무엇입니까>라는 質問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答辯했다. 「雇傭과 需要만 높으면 生産성은 無視해도 괜찮다(We can take productivity for granted, provided that employment and demand remain high).」⁽²⁶⁾ 「Keynes 體系에 있어서는 生産성이 存立할 餘地가 없고 生産性向上의 方途도 있을 수 없고 經濟를 보다 生産的으로 할 方便도 없다. (Within Keynesian system there is no room for productivity, no way to stimulate or spur it, no means to make an economy more productive)」 「Keynes經濟學的 生産性問題 取扱에 대한 理論的·政策的 無能力은 코페르니쿠스의 說明이 通하고 있는 時代에 天體의 運動을 說明하는데 토레미의 天文學을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 (the Keynesian inability to handle productivity within the theoretical structure or within economic policy is as serious a flaw as was the inability of Ptolemaic astronomy around the time of Copernicus to explain the motion of stars and planets)」⁽²⁷⁾

정말 Keynes에 대한 深刻한 攻擊이다. 한때 資本主義의 救世主(Deus ex machina)라는

(26) P. Drucker, "Towards the Next Economics," *The Crisis in Economic Theory*, edited by D. Bell and I. Kristol, 1981, pp.9-10.

(27) *Ibid.*, p. 11.

呼稱까지 받았던 Keynes가 이번에는 資本主義를 망치는 確壞分子라는 말까지 받게되었으니! 그러나今日の美國과 英國經濟의 不振의 80%의 原因은 Keynes經濟學이 저야 된다고 생각한다. 私見에 의하면 Keynes 經濟學의 失敗의 根元的 原因은 그의「國內市場 優先論」에 있다고 생각한다. 國家經濟도 其他 國家經濟와 必然的인 競爭에 들어가게 되며 그 競爭에 이겨야 生存할 수 있다는「鐵의 必然性」(eherner Notwendigkeit)⁽²⁸⁾을 Keynes經濟學은 度外視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왜 그것을 度外視했을까? 英國 또는 美國이 世界에서 항상 No.1의 位置를 占 차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 Keynes經濟學이 失敗한 것은 그것이 對外競爭을 強調하는 國民經濟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Samuelson의『經濟學』(11版)「國際貿易」의 章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國際貿易은 相互間에 利益(mutually profitable)을 가져오게 한다. 1時間當 賃금이 美國 9달러 日本 6달러일 때에도 美國은 日本과의 貿易에서 利益을 얻을 수 있을까. 比較優位의 理論은 이에 대해서〈된다〉고 答한다.」⁽²⁹⁾ 競爭을 強調하지 않고 補充性만을 說明하는 이 比較優位의 理論때문에 美國이 日本에 지게 된 것이다. Samuelson도 美國經濟가 日本經濟에 지게 된 責任을 負야 된다고 생각한다.

V. 韓國 政治經濟學의 輪廓

이러한 理由로써 韓國 政治經濟學은 우선 一次的으로 對外競爭力을 強調하는 國民經濟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韓國 政治經濟學도 獨逸 歷史學派 特히 List의 國民經濟學으로부터 그 叢智를 引受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① List는 國民經濟를 文化·政治 其他와 關聯시켜서 社會全體의 一部分으로서 取扱했다는 것이다. 즉 List는 物理法則과 心理法則을 受容하면서 全體論(holism)의 方法論 즉 辨證法的 方法을 採擇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經濟學으로서의 韓國 政治經濟學도 物理法則과 心理法則을 受容하면서 全體論의 方法論을 取해야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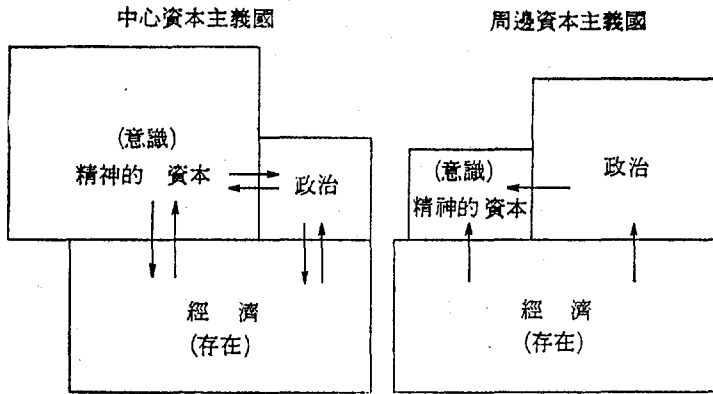
前記한 바와 같이 List는 國家의 發展을 「分化」와 「總合」의 進行으로서 보고 있는 社會經濟學의 立場을 採擇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物質的 資本」과 併行하는 「精神的 資本」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過去의 모든 時代의 사람들의 一體의 發見, 發明, 改良, 完成

(28) K. Marx, *Das Kapital*, Vol. I, S. 6.

(29) P. Samuelson, *Economics*, 11th ed. p. 627. 여기서 「相互間利益」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消費者剩餘」를 意味한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는다.

및 勞力의 結果」⁽³⁰⁾라고. 그리고 「國家의 가장 重要한 作業의 分業은 精神的 作業과 物質的 作業의 分業이다(Die höchste Teilung der Geschäfte in der Nation ist die geistigen und materiellen)」⁽³¹⁾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物質的 生産」과 「精神的 生産」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分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精神的 生産者가 生産力을 生産한다(Die geistigen Produzenten produktive Kräfte produzieren)」⁽³²⁾ 「어떤 國民의 物質的 資本을 發展시키는 牽引力은 그 國民의 精神的 資本이다. 그리고 그 反對도 成立된다. (Die Vermehrung der materiellen National Kapital ist bedingt durch die Vermehrung der nationalen Geisteskapitale, und umgekehrt)」⁽³³⁾ 그리고 現在 世界資本主義 體系內에 中心資本主義國群과 周邊資本主義國群의 2大陣營이 있으며, 이것은 物質的 生産力의 不均等發展의 必然의 結果이며, 이 物質的 生産力의 不均等發展을 가져오는 것은 또, List의 理論에 따라, 精神的 生産力의 不均等 發展이다라는 命題를 確立해 놓기로 하자.

그리고 <精神的 生産力의 不均等發展→物質的 生産力의 不均等發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List, Marshall의 社會經濟學에 따라, 精神的 生産과 物質的 生産에 있어서의 「分化」와 「總合」의 進行의 程度라고 해두기로 한다.⁽³⁴⁾ 즉, 文化, 學問에 있어서의 細分化·專門化의 程度가 物質的 生産에 있어서의 分業의 程度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心資本主義國은 精神的 生産, 즉 學問 其他에 있어서의 細分化·專門化가 高度로 發達됨으로써 그에 따라 物質的 生産에 있어서의 分業도 高度로 進行되고 있는데 대해서, 周邊資本主義



(30) F. List, a.a.O., S. 149.

(31) Ibid., S. 264.

(32) Ibid., S. 151.

(33) Ibid., S. 215.

(34) Marx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는 「相對的 過剩人口」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分化」「總合」에 의해서 雇傭增加를 가져오게 한다.

國은 精神的 生産, 즉 學問 其他에 있어서의 細分化·專門化가 잘 進行되지 않음으로써 物質的 生産에 있어서의 分業도 잘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中心資本主義國 對 周邊資本主義國>의 垂直關係=從屬關係의 內容은 <高品質, 高價格, 高賃金商品 對 低品質, 低價格, 低賃金商品>이 된다고 해 두기로 한다. 그리고 <高品質, 高價格, 高賃金商品 對 低品質, 低價格, 低賃金商品>의 垂直關係=從屬關係에 있어서는 技術的 從屬, 國際的 不等價交換, 赤字累積, 外債發生 等の 國際的 榨取現象이 發生한다고 해 두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美國, 日本, 유럽 等を 中心部로 하는 周邊部=從屬國이 된다는 것도 <率直>하게 是認해 두기로 하자.

그리고 國民經濟學으로서의 韓國 政治經濟學이 設定하는 「大目標」은 <低位의 精神的 生産力→低位의 物質的 生産力(低位의 「分化」·「總合」)→對中心部 從屬>의 脫却이 되어야 한다고 結論을 맺어 두기로 하자. 이 「大目標」의 設定은 List의 方式대로 經濟를 文化·政治와 의 「相互作用」으로써 보는 全體論的 方法論, 즉 辨證法的 方法論으로부터서만 誘導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해 두기로 한다.⁽³⁵⁾ 그리고 또 하나 辨證法이 當時의 「先進」인 英國을 競爭對象으로 삼아 온 當時의 「後進」인 獨逸에서 發生된 極大主義 思考方式이라는 것도 말해 두기로 하자. 그리고 從來世界 No. 1의 位置에 있던 美國이 「後進」이 되자 할 수 없이 全體論的 方法論으로 思考方式을 轉換하고 있다는 것도 言及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L.C. Thurow의 Zero-Sum 理論이라는 것이 全體論的 方法論에 立脚한 美國式 國民經濟學의 한 類型이라고 筆者는 생각하고 있다.

②다음에 韓國 政治經濟學은 또 階級經濟學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韓國의 階級經濟學은 어떠한 形態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無條件 國民經濟學 가운데 包含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階級」은 「國民」가운데에 包含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Marx의 階級經濟學은 窮極의으로는 國家를 抹殺하려는 國際主義를 標榜하고 나서는 經濟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2次大戰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Marx 階級經濟學이 志向하던 모든 것이 現實의으로 완전히 幻想 乃至는 虛僞였다는 것이 드러난 오늘, 韓國에 있어서의 階級經濟學은 蘇聯式 社會主義와는 아무 未練없이 訣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韓國에 있어서의 階級經濟學은 어떠한 것을 志向해야 되는가? 日本에서와 같이 「全國民 中産層化」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日本에서는 學問의 專門化·技術의 專門化를 통해서 勞動의 限界 價値生産力의 質과 量을 同時에 向上시킬 수가 있었다. 즉, 勞動을 高度의 教育을 통해서

(35) 「精神的 資本과 物質的 資本과의 相互作用」(Wechselwirkung zwischen dem geistigen und materiellen National Kapital) Vgl. *Ibid.*, S. 215.

熟練知識勞動으로 轉換시키는 同時에 生産性向上도 企圖했다는 것이다. 즉, List, Marshall의 「組織」의 原理, 즉「分化」와 「總合」의 原理를 適用하는 데 완전히 成功했다는 것이다. 한편, 資本家階級은 「日本的 儒教」(日本精神)에 의해서 徐徐히 實權을 經營者에게 넘겨 줌으로써 個人株主가 後退하여 스스로 中産層化되어 가고 있는 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民經濟學과 階級經濟學으로서의 韓國 政治經濟學은 民族의 ethos를 그 속에 包含해야 된다는 것을 強調해 두기로 하자. 獨逸 新歷史學派의 代表者 Gastav Schmoller는 歷史學派의 3個의 「根本思想」(Grundgedanken)이라고 하여, ① 「發展思想의 承認」(die Anerkennung des Entwicklungsgedanken) ② 「心理的·道德的 考察」(eine psychologisch-sittliche Betrachtung) ③ 「社會主義·個人主義의 自然觀에 대한 批判的 態度」(ein kritisches Verhalten gegenüber der individualistischen Naturlehre wie gegen den Sozialismus) 등을 提示하고 있다.⁽³⁶⁾ 여기서 ② 「道德的 考察」이란 「獨逸精神」(Deutsche Geist)의 歎吹를 意味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Hegel은 「世界法廷으로서의 世界史」(Weltgeschichte als dem Weltgerichte)라는 말을 했다.⁽³⁷⁾ 「世界法廷으로서의 世界史過程」에 있어서의 「國民」은 特有的 歷史的인 「民族精神」 즉 national identity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美國이 衰退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자, 美國에서는 ‘American Spirit’가 歎吹되기 시작했다. 「新經營의 길을 探究하는 旋風이 부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가 빠지고 있다. 그것은 經營者魂과 精神(the soul and spirit of management)이다.」⁽³⁸⁾

(36) G. Schmoller, *Grundriß der allgemeinen Volkswirtschaftslehre*, 1908, S. 123.

(37)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Lasoans Ausgabe, 3 Aufl., S. 271.

(38) L. Miller, *American Spirit, Vision of a New Corporate Culture*, 1984, p. 3.